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공익성 높이니 호응 'UP'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공익 사업 '인기몰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 문화 사업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공공성을 높여 대중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찰음식 공익사업 역시 준비된 수량이 거의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공익성'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사업의 중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9100명이 공익 템플스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공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다.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3박 4일간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와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박 2일 '쓰담쓰담 템플스테이' 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6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 참가비의 30%를 할인하는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연인원 기준으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에는 2500명이 다녀갔으며, '쓰담쓰담 템플스테이' 는 3900명이, 백신 접종자 할인 템플스테이는 27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선착순 1만 명에게 제공하는 백신 접종자 할인 템플스테이는 운영 2달 만에 전체 제공 인원의 30%인 2900명이 신청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참가자 추이를 파악한 후 인센티브 제공 인원 증대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템플스테이는 20~40대가 전체 참가자의 70%인데, 8월부터 이들의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른 조기 인센티브 마감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사회 공익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꾸준한 성장세다. 최근 3년 간 공익 템플스테이는 전체 참가자의 7.1%에 해당하는 8만 900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음에도 공익 템플스테이에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대중들의 호응도 높았다.

현재는 코로나19관련 의료진, 피해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주류지만, 공익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 운영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처음에는 개별 사찰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제공했다.

이후 2010년에 들어서 불교계 단체들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문화사업단은 '공익 템플스테이' 라는 명칭으로 복지관 · 청소년 보호관찰소 · 고아원 등 문화소외계층과 지역사찰을 연계해주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11월 문화사업단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도박문제 치유 · 재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며 템플스테이 사회공헌성을 높였다. 이는 〈도박중독자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정신 및 감정 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기업연수 프로그램 매뉴얼〉 등의 제작으로 이어져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김유신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장은 "공익 템플스테이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진행돼 왔다. 치유와 소통을 통한 사회 공헌도 템플스테이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템플스테이를 제공했고, 올해부터는 공연과 전시를 못 하게 된 문화예술인에게도 무료 템플스테이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9100명 공익템플스테이에 참여
코로나19에도 지난해 3만여 명 혜택
백신 접종 확산위해 템플스테이 할인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 음식' 인기
"공익사업, 브랜드 인지도 긍정 확산"

문화사업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사찰음식' 도 공익성을 더하고 난 후 대중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사연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온라인 수기 모집' 은 준비한 수량이 거의 소진될 만큼 많은 사연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도시락 및 간식 수량을 늘려 더 많은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사회 공익 사찰음식 사업에는 지난해 1만 6000여 명이 수혜를 받았다.

접수된 사연들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김포공항 직원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찜통 무더위 속에서도 승객들의 이용 편의와 안전, 방역을 위해 공항 직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명절도, 낮밤도 없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다"는 신청 사연을 보내왔다.



하원 스님은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 강조되는 현대 마케팅 환경에서 문화사업단의 이 같은 공익 활동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나아가 템플스테이의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 나아가서는 참가자 증가와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사업단도 사회 공헌을 위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를 위로하기 위해 공익 템플스테이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심신안정과 힐링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닥토닥 및 쓰담쓰담, 백신 접종자 할인 템플스테이는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전국 135개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가능하다. 참가 시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 소상공인 증명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해당하는 서류를 사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연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온라인 수기는 9월 3일까지 '소중한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여러분의 사연' 을 주제로 사찰음식 홈페이지(koreatemplefood.com)에서 접수하고 있다. 누구나 사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연이 채택되면 사찰음식 도시락이나 간식을 최소 20개에서 최대 50개까지 받을 수 있다. 사찰음식 특성상 서울 · 경기지역은 도시락과 간식, 기타 지역은 간식이 배송된다.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미·사미니스님

입원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그동안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중앙종회에서 의료비 수혜대상을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스님으로 확대하는 승려복지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자격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사미·사미니계 수계 이후 3분의 2이상 등재 또는 최근 2년간 전부 등재)으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스님
※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서류
1)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종단홈페이지 – '승려복지'에서 양식 다운)
※ 당해 기본교육기관장의 확인(지원신청서 하단)을 받아야 함
2) 진료비 내역이 표시된 납부영수증 사본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지원 범위
1)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 :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미용 및 보양목적은 제외)
2) 일반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1회 신청금액 10만원 이하는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기간
퇴원 후 1년 이내(사미·사미니의 경우 휴학 중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다만 질병에 의한 휴학 중인 경우에는 승려복지회의 의결로 지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입원진료 적용

지원 절차
1) 자격심사 : 결계록 등재여부,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해당여부, **기본교육기관 재학여부(교육원 확인)** 등
2) 신청자에게 입원진료비 입금
3) 교구본사와 분기별로 정산

접수및 문의
1) 접수 : 우편 및 팩스 (02-733-3603)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승려복지회
2) 문의 : **02-2011-1726~7, 1980~2**

불기2565(2021)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